

국회도서관과 협정 각종 논문 검색 가능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오는 23일 국회도서관과 '학술정보공유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정으로 학생들은 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과학분야 석박사 학위논문'을 포함한 논문 28만 여건의 본문을 학교에서 볼 수 있게 됐다.

이 서비스는 중앙도서관 3층 참고도서실에 있는 3대의 PC와 1층 정보검색실에 있는 2대의 PC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일체경음의 3' 발간 대장경 어휘·어원풀이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14일 '일체경음의 3'을 발간했다. 일체경음의는 대장경 어휘 사전으로 풀이하기 힘든 어휘의 어원을 자세히 설명하고 발음까지 덧붙여 대장경 해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역경원은 총 10권으로 이뤄진 일체경음의 중 6권을 발간했으며, 앞으로 4권의 발간을 남겨두고 있다.

경주캠 연구년교원 서영석 교수 외 5명

경주캠 연구교류실(실장=장해룡·생물학)은 연구년 및 해외 연수 교원을 선정했다.

2001학년도 연구년으로 선발된 교원은 △서영석(국문학) △박정평(국사학) △이점원(미술학) △황윤식(회계학) △박명숙(가정교육) △이영기(경제학) 교수로 모두 6명이며, 2001년 3월 1일부터 약 1년동안 연구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박상범(경영학)교수는 해외연수 교원으로 선정돼 2001년 8월 1일부터 6개월간 미국에서 연수를 받는다.

장학금신청 접수 오는 28일까지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01학년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평점이 3.0이상인 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학업지도 교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학생회선거 내일(21일)부터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단과대별 실시 ... 경주캠 총여 21·22일

2001학년도 학생회 선거 투표가 오는 21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다. 총학생회·총여학생회·총대의원회 등 중앙기구 투표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아간 강좌는 오후 2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실시하며 특히, 영문학과, 중문학과, 물리반도체학과 등 명진관에서 수업을 듣는 야간강좌 학생들은 오후 5시 이후에는 명진관에서 투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동국관 앞에서 2차 합동유세가 진행됐다.

총학생회에 임후보한 김홍민(지교4)·김덕기(경영3) 조는 통일 사업 설명에 중점을 두었던 1차 유세와 달리 2차 유세는 학내 복지문제, 생활문제와 관련된 공약제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총학생회 임후보자들은 "학부제 폐지, 생협 독립법인화 등 학내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새터 사고 부상자 처리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등록금 인상 저지, 교육재정 확보 등 공약사항을 내걸었다.

또한 총여학생회 임후보자는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비롯해 △성폭력 근절 토론회 주간 개최 △단과대별 반성폭력 자치규약 제정 추진 △여성주의 역사 기행 △여성학 도서관 설치 등 여학생 복지를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20일) 오후 1시 중앙도서관 앞에서 중앙기구 선거 투표를 위한 3차 합동유세가 열린다. 채진석(경제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포했던 1·2차 합동유세와 달리 3차 합동유세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보다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선거 기간을 늦춘 만큼 많은 학생들이 선거에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3일간 단과대 학생회 후보자 등록을 연장한 결과 불대와 경영대, 공대 3개 단과대에 후보자가 등록해 중앙기구선거와 함께 각 단과대학 건물 입구에서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서울보도) 경주캠 총학생회 선거 투표가 오는 29일에 치러진다. 내일(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진행되는 총여학생회 선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야간=오후 9시까지) △불교대=영산관 1층 로비 △인문대=원효관 1층 수위실 앞 △자연대=자연대

1층 로비 △삼대·법대·관광대(이부대포함)=진흥관 1층 수위실 앞 △의대=의학관 1층 로비 △한의대=휴게실 앞에서 실시된다.

이에 앞서 총여학생회는 지난 14일 백상탑 앞에서 1차 소견 발표회를 가졌으며 오늘(20일) 오후 2시 원효관 중정에서 2차 소견 발표회를 갖는다. 1차 소견 발표회에서 정=이현(고미사3)·부=한영은(정보산업3) 후보는 남·여 평등의 실현을 위해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며 성폭력 상담과 고발 센터운영 등을 약속했다.

▶관련기사 2면(경주보도)

생협 예산운영 책임자 불신임 논란 예산 임의집행 학생, 징계 요구

26차 생협이사회 무산 ... '징계' 이견 좁히지 못해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이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예산을 집행해 예산 운영에 허점을 드러냈다. 학생대표 이사는 추경예산을 임의로 집행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의 불신임과 사무국장의 해임을 건의했으나, 교수와 직원 측이 반대해 논의가 무산됐다.

지난 16일에 비공개로 진행된 27차 생협 이사회에서 학생 대표 이사들은 계획된 사업 이외에 추가로 집행한 추경예산안이 이사회에 보고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사무국은 뒤늦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고했다.

생협 규정에 따르면 생협이 추경예산을 신청할 경우 매달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해 사업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사무국은 1억원 이상의 추경예산안을 보고하지 않은 채 집행해 규정을 어겨온 것이다.

문제가 된 추경예산 집행 내용을 살펴보면 △지나해 집행된 사업으로 금년예산에 누락되어 있는 다함군 복지매장 공사 △삼육원 휴게 공간 조성 △생협 LAN 설치 △사무국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 등으로 총 1억 9백만원 가량이 소요됐다.

이에 따라 학생대표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에 책임을 물어 생협 이사장과 사무국장을 징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생협 학생 이사 김태광(국교4) 부총학생회장은 "1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사무국장이 임의로 집행한 것은 징계이유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수, 직원 대표들은 징계를 내리기에 앞서 사업 목적이 타당하기를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협 직원대표 이사 김운길 불교대학원 과정은 "징계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며 "회계검토가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로 생협 사무국장의 미숙한 운영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학생이사들은 인사의 자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인사에 대해 이사회에서 임면동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 생협 사무국장과 이사장 인사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생협 내부에 예산집행 통제장치가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추경예산이 생협 사무국 임의로 집행되어 왔으나 연말이 다 되도록 생협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예산 집행을 제어할 수 있는 내부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27차 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집행을 재논의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김현중 기자 dizzo20@dongguk.edu



"잊지 맙시다" ... 지난 18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전태일 열사 30주기 추도식이 진행됐다. 이날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71)여사는 딸 전순숙(46)씨가 오빠에게 드리는 편지를 낭독하자 끝내 감추던 눈물을 보였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축구부 FA컵 대회 출전 26일 전남과 첫 경기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는 오는 25일부터 열흘간 열리는 '2000 서울은행 FA컵 축구대회'에 출전한다. 프로·실업·대학·고등부 등 총 24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본교는 오는 26일 여수 여

천공설운동장에서 전남드래곤즈와 첫 경기를 갖는다.

고수동정

▲송영병(미술학)=오늘(2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미술세미나 참가

지면안내

문학 번역의 현주소 5면



지난달 28일 영미문학연구회는 '번역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어 문학작품 번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세익스피어 작품을 중심으로 번역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2000년 전국노동자대회 4면

개성의 상징, 피어싱과 타투 6면



바른 판단(正見)

전 해 주 (불교대 불교학부)

교정 한 가운데 자리하신 부처님 상이 이반에 새로 옷을 갈아 입으셨다. 지난번 훼손사건 때 불상에 그려진 십자가의 흔적이 말끔히 지워지고 새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서게되게 되었다.

그 불상 주변에 여덟 갈래의 길이 갈라져 있으니 그것은 팔정도(八正道)를 상징하는 것이다. 팔정도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5비구에게 설하신 첫 설법에서 중도(中道)의 가르침을 펴시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8가지 바른 길이다. 불교에서 닦는 모든 수행법은 바로 중도의 실천이고, 그 구체적 삶의 길이 8정도인 것이다. 그리고 그 팔정도의 첫째가 바른 판단(正見)이다. 바른 판단은 우리가 잘 살아가는 첫째 길임을 알 수 있다.

부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힘 가운데 첫째도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處非處辨力)'이다. 많이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알고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존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드러난 부분만이 아니라 숨겨진 부분까지도 다 볼 줄 알아야 한다. 반달은 반쪽이 없는 달이 아니라 반쪽이 숨겨져 보이지 않는 달이다. 날이 지남에 따라 다시 보이지 않던 부분이 드러나고 보이던 부분이 숨겨 된다. 드러나고 숨겨진 부분, 보이고 보이지 않는 부분 모두가 반달의 모습인 것이다.

또한 자기자신과 다른 이들에게 적용시키는 판단 기준이 같아야 한다. 움직이는 잣대는 개체나 집단간의 갈등을 초래한다. 집단이기주의도 그에 다름 아니다. 선인선과 악인악과의 인과는 나와 남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다. 움직이는 잣대는 욕심에 기인하고 그것은 어리석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영향력을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 자신은 물론이고 모두를 망치게 되는 것이다.

교정에 서계시는 부처님을 뵈고 여덟 갈래 길을 걸으면서 우리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정견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한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의 손길로 만들겠습니다.

50년동안 여김없는 격려와 질책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세롭고 알찬 동대신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대신문은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동문, 전국의 고교교사, 사찰 및 언론사등의 공공기관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료는 동대신문 발전에 귀중하게 사용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구독료는 동대신문사(조흥은행 371-01-065384)로 보내주시시오.
- 구독료 : 20,000원(1년치분)



동대신문사

복수전공 지원 증가

전공최저학점 상향·취업부담 ... 전공간 연계강좌 필요

2000학년도 2학년 2학기 재학생 복수전공 결정자를 지난 17일 확정·공고한 가운데, 총 920명의 지원자 중 제1전공은 727명, 제2전공은 167명이 선발됐다.

이번 복수전공 결정은 지난해 2학년 재학생의 25%가 복수전공을 지원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2.9%의 학생들이 지원해 복수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급증했다.

이같이 복수전공자들이 늘어나면서 계열화기 수강생 또한 급증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겨울 계절학기 강좌수가 98년은 14개, 99년은 24개였던 반면, 올해는 38개의 강좌가 개설됐다. 과거 계절

학기는 미달된 학점을 채우는 불가피한 수단이었으나, 이제는 학기 중 복수전공을 이수하기 위해 방학중에 교양학점을 이수하는 새로운 형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복수전공지원의 증가 원인은 전공최저이수학점의 상향과 취업의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본교는 지난 96년 학부제를 시행하면서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도입, 대부분의 학과가 전공최저학점이 36학점으로 하향조정됐다. 이는 학부제가 다양한 전공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순기능에 부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교무처(처장=신재

호·전자공학) 학사지원실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이 최소전공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교양수업에 치우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선택제를 도입해 복수전공과 심화전공 중 한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99학년도 입학자부터 일부 단과대를 제외하고는 단일전공자의 경우 최소전공이수학점이 36학점에서 54학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러한 전공선택제도 도입은 복수전공 지원자의 증가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갈수록 심해지는 취업난은

졸업생들의 사회진출을 어렵게 했다. 따라서 이미 전공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취입이 잘 되는 학과에 복수전공 신청이 대거 몰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이번 복수전공 심사결과, 경영학은 80명 선발에 195명이 지원해 115명이 탈락하였다.

북한학과 경영학을 전공해 앞으로 대북경영사업에 진출하려는 오석(북한2) 군은 "전공을 서로 연계해 전공강좌 커리큘럼이 더욱 다양하고 깊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선원사지 4차 발굴 시작 팔만대장경 자취 쫓아

박물관(관장=장충식·미술사학)은 지난 13일부터 선원사지 4차 발굴에 들어갔다.

선원사지는 풍고가 고려를 침략했을 당시 팔만대장경을 간행한 곳으로, 본교 박물관이 96년부터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발굴을 진행했다.

발굴단은 4년여 동안 실시한 발굴 작업을 통해 20여개의 건물지를 비롯한 3존불을 모신 금당터, 소형금동탄생불 1구를 발견했다.

이와 관련해 박물관의 김병곤 연구원은 "이번 4차 발굴은 팔만대장경 간행의 흔적을 찾아내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판부, 새책 출간 '한방은 배설의학이다'

출판부(부장=김병수)는 '한방의학총서'의 번역본인 '한방은 배설의학이다'를 출간했다.

'한방은 배설의학이다'는 고전의학사에 기록된 치료법을 과학적 실험에 근거해 알기쉽게 풀이한 것으로, 최달영(한의학) 교수 외 본교 한의학과 교수 5명이 번역했다.

이와 관련해 출판부의 한 관계자는 "쉽고 재미있게 한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호(제 1307호 11월 13일자) 단과대 학생회 기사중 경영대 임후보자 김성호 군의 소속을 경제통상 2에서 경상학부 2로 정정.



"잊지 맙시다" ... 새터사고 부상자들이 새터사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학내 곳곳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연장등록 3개 단과대 선거

내일(21일)부터 3일간 불교대·경영대·공과대

2001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정·부 임후보자 등록을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연장한 결과 불교대, 경영대, 공과대 3개 학생회 정·부 후보가 등록했다.

불교대는 '청년 만해의 원력으로

열어가는 정보세상'이라는 구호아래 △종단·학교·학생주체가 함께하는 불교대 발전위원회 조직 등의 공약을 내걸고 정=김대수(불교3)·부=이예지(불교3) 후보가 출마했다.

경영대는 김성호(경상학부2)군이

'끝났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1400의 믿음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학생들과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나왕 계속 초청간담회

“달라이 라마와 함께 왔으면”

자비와 사랑 음악으로 표현

본교 BK21 불교문화사상사 교육연구원(단장=조용길·선학)은 '달라이 라마의 방한 성사와 티베트 어린이마음의 교육재정 마련 콘서트' 공연자 방한한 티베트 출신의 세계적인 민속음악연주가 나왕 케축을 초청, 지난 14일 다화관 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당초 자비와 평화의 지도자로 명성 높은 달라이 라마 초청 강연 계획이 무산되면서 평소 달라이 라마의 사상과 정신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는 나왕 케축을 초청하게 된 것이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에 맞춰 공연하고 싶습니다."

나왕 케축은 지난 16일 예정이었던 달라이 라마의 방한이 불허된 사실을 매우 아쉬워했다.

1989년 달라이 라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식에서 축하음악을 연주했던 나왕 케축은 티베트의 전통악기를 사용해 티베트 음악을 널리 알린 최초의 티베트 음악가이자 작곡가이다.

그는 무엇보다 "자비와 사랑을 인간의 본질이라 설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티베트 망명정부의 투쟁은 반중국투쟁이 아니라 중국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티베트인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바람"이라고 전했다.



나왕 케축이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다.

그리고 독재정권의 탄압에 맞서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리를 위해 싸운 공로로 얼마 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이 오래 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불허한 것은 "본심과 다르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하는 정치상황 때문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현재 망명생활 중인 티베트인들이 티베트공연예술센터를 인도에 설립하고, 티베트인들의 공동체 건립과 티베트의 문화교육을 위한 일요학교를 세우는 등 문화보존에 최우선으로 힘쓰고 있다며 "한국 국민들이 세계의 보물이 될만한 가치를 지닌 고대 문화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공과대는 황정임(전자3)양이 임후보에 '겉자, 뉘자, 날자'라는 구호로 △올바른 학생회 체계 확립 △공과대 복지 문제 해결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오늘(20일) 오후 12시부터 저녁 8시 사이에 각 단과대학 건물 앞에서 임후보자들의 유세가 열리며, 내일(21일)부터 3일간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총학생회를 비롯한 중앙기구 선거와 함께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장소는 △불교대=문화관 입구 △공과대=21일은 원흥관 1층 로비, 22·23일은 원흥관 4층 로비 △경영대=동국관 2층 입구이다.

한편, 이과대, 법과대, 사회과학대, 정보산업대, 예술대 학생회와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임후보자가 없어 내년 3월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교직 부전공 이수신청 오늘(20일)부터 5일간

'2000학년도 교직 부전공 이수신청서' 접수를 오늘(20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교직 부전공 이수신청은 2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학생과 사범대 학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직과정이 개설된 전학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신청학과 주임교수와 상담을 한 후 사범대학 교학과에 접수하면 된다.

회전무대

도로아미타불

0...요즘 컴퓨터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컴퓨터의 배신에 종종 눈물을 머금는데, 알바분족, 드라이브나 네트워크 이상으로 열심히 작업한 것들을 그대로 날려버리는 일이 허다하다고.

게다가 고장난 컴퓨터를 제때 수리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은 점점 쌓여만간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한 시간 작업이 도로아미타불 되지 않기를..."

핸드폰 무한경쟁

0...요즘 도서관이 온갖 경음악으로 노래방을 연상케 한다는데.

한동안 잠잠하던 핸드폰 벨소리가 다시금 도서관의 정적을 깨고 있다고.

학생들은 '핸드폰 사용금지'라는 경고문구가 무색하게 핸드폰을 진동으로 바꾸는 기본예절도 무시하고 전화통화까지 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잠시 깨우셔도 좋습니다 vs 핸드폰 벨소리는 700-X X X X(?)"

다친 동(東)심

0...최근 학생식당 아주머니들의 불친절로 마음에 상처를 입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알아보니, 김치나 단무지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모른 척하거나 핀잔을 준다.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은 학생들은 가슴에 상처를 받게 되니.

이에 식당을 이용하는 한 학생 왈, "단무지를 쥐요, 난 ... 소중하니깐요."

선거포착

0...11월, 선거의 계절이건만 동학의 선거 분위기는 불어오는 찬바람보다 더 쌀늘하디는데.

지난 15일 동국관 앞에서 열린 2차 합동유세를 지켜보는 학생들은 10여명 정도에 불과했다고.

이는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극에 달한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학생, 선거가 뭐예요?" 이에 한 학생 왈, "나도 잘 몰러, 그냥 도장이 나 찍어."

의·약·정 합의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논단

'의료소비자 권리' 무시한 합의안 도출

의약계와 시민사이 신뢰구축 우선 과제

2000년 11월 11일 의·약·정 협의를 통해 일단 의약분업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간 합의가 일단락 되었다. 합의된 내용을 떠나 이번 합의를 계기로 의료계가 그동안의 과업과 같은 행태에서 탈피하고, 의약분업이 정상적 궤도에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그간 의료계업을 비롯한 의약분업 진행 과정상의 비협조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램 또한 간절하다.

물론 의·약·정의 합의가 약사법 개정의 결과까지 이르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고, 최종적으로 의료계와 약계의 완전한 동의를 이루어 낸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시민사회 단체로 인해 어렵게 이루어 낸 합의를 깨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약정의 합의내용이 국민건강권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원칙적인 후퇴를 가져왔음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감시·참여 배제

먼저 11월 11일의 의약정 합의내용은 보

건의료 제도 운영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상용약품 전달 의약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의 해체를 의미한다.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지역내 병원·약국간 담합방지와 약품 선정에서의 부정 방지 등을 위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의약정 합의내용에는 이러한 시민의 감시·참여구조가 삭제되었다.

또 의약품 분류위원회에서 공익대표가 배제되고 의약계 동수로 구성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비판될 수 있다.

약효동등성 검사의 무용성

둘째, 금번 의약정 합의내용은 상용처방 목록을 전함에 있어서 약효동등성 확보의 전제가 빠져있다.

이후 이 합의안대로 상용 처방목록이 정하여지고 이 과정에서 저질 약품이 선정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지는 것이다. 저질의 약을 선택하는 개연성은 담합이나 리베이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사후 감시가 아니라 원천적인 금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합의내용은 정부 스스로가 이루어낸 약효동등성 검사과정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즉 의약분업을 위해 약효동등성 검사가 이미 실시되었고 반수 가량의 약제가 스스로 이 약효동등성 검사를 포기하여 퇴출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말미암아 수준이하의 약과 금번 약효동등성 검사를 통과한 약의 차이가 없어지고 말았다.

알 권리 제한한 합의

넷째, 금번 의약정 합의내용은 의약분업의 최대의 성과 중 하나인 처방전 2매 발행마저 처방전 서식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과 관련된 사항을 처방전 서식위원회로 이관한다는 것은 처방전 1매 발행으로의 변화 수순을 밟는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들이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의약분업의 출발과 함께 추진되었던 여



허윤정 건강연대 건강네트워크 실장

러 직능 이익 집단과의 합의 내용이 국민 건강권에 있어 국민의 제도결정권, 알 권리, 최소한 추가 부담 없는 접근권의 보장 등을 훼손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해 왔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개혁을 주장했던 의약계가 직능 이익을 앞세워 국민건강권을 후퇴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합의내용을 도출하였는데 허탈과 분노의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이를 수용한 정부의 무능함에 다시 한번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시민이 스스로 건강을 보호하고 자신의 진료내역을 알고 최소의 부담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제 의료소비자의 권리는 시민 스스로 힘으로 이를 수복해 없다는 의식의 전환이 지난 의료대란을 계기로 시작된 듯하다.

사설

또다시 대학에 불어오는 '찬바람'

노동계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에 대학이 풍공 얼어붙고 있다.

지난 12일에 열린 민주노동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각목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과 격렬하게 대치했다. 경찰이 실업대란을 예고하는 일방적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며 명동성당까지 행진하고자 했던 노동자들의 마지막 결집까지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두고 노동자들 때문에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온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구조조정에서 비롯된 정리해고의 칼날이 자기의 목 앞에 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대학 졸업예정자들은 이미 예비 실업자라고 불려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학교 밖은 금융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기업퇴출로 대량감원이 잇따르고 있으며 취업전선에도 찬바람이 불어 곧 실업자 100만명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년전 IMF 한파로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하거나 입대했다. 그리고 다시 복학해 취업을 준비하는 그 당시 학생들이 지금의 졸업예정자들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시보다 더한 실업대란이 기다리고 있다니 기막힐 노릇이다. 요즘 주요 대학의 2학기 휴학생은 30%를 넘어가고 있다.

올 대학졸업 예정자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최악의 취업난에 처하게 됐다. 기업들이 연초 발표보다 하반기 채용인원을 30% 이상 줄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내년에는 17만명으로 추산되는 취업재수생과 졸업자 등 18만명이 8만 5천여개에 불과한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심히 볼 일이 아니다. 실업대란과 구조조정은 이미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경주캠 학생회 선거 재검토

모든 국가에서 헌법이 기준이 되듯이 각 대학마다 제정된 총학생회칙은 각 학생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가 한창인 경주캠은 총학생회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총학생회칙에 준해 마련된 선거시행세칙이 무용지물이 된 채 이에 근거해 제정된 단과대와 자치기구의 선거시행세칙만 선거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에는 총학생회칙 제20조에 의거해 학생회 임원의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는 목적이 있다. 또 제2조에는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의 적용범위는 1항에서 총학생회 및 각 단과 및 자치기구 선거에 관한 사항이, 2항에서는 총학생회 및 각 단과 및 자치기구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 학생회에서 이와 같은 세칙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 없이 단과 시행세칙만을 그대로 적용시키거나 관례를 그대로 따라왔던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모 단과에서는 총학생회에 준한 선거시행세칙이 존재하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학생회에 준한 선거시행세칙 제8장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한 자는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선관위 측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입후보자 측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선거 룰미팅 자리에서 양측이 이에 대해 확실한 검토와 논의를 했다면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선거를 치르지 않은 현의대와 의대, 그리고 선거시행세칙을 지킨 총대의원회, 중선위를 제외하면 선관위 구성일과 입후보자 등록일을 위반한 모든 학생회는 위 상황에 해당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총학생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의 목적·적용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각 학생회 선관위는 이에 의거한 선거를 시행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하다.

학생자치공간에 대한 인식변화

배타적인 공간 "열린다"

"우리도 동아리방 만들어 주세요"

학내 곳곳에서 공간부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정식 동아리로 인정받은 '피어리스턴'은 학생회관 공간이 부족해 동아리방이 없다. 동아리연합회와 학생복지실에 요청을 했지만 "없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느냐"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학내 학생자치공간의 부족은 단지 동아리방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학생회실이나 실습실 등도 공간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실습실과 단과대 도서관의 경우 배타성을 띄기 때문에 타학과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시설 이용이 일부 학생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느냐는 비판과 함께 효율성을 높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근 고려대 경영대는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자치공간을 공용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학과 세미나실을 공용화하여 타학과 학생들과 함께 사용하거나 좁은 동아리방 여러 개를 통합하여 시간대 별로 넓게 쓰자는 것 등이다.

본교는 지난 98년 동국관 지하 1층에 BSC(Business Solution Center)라는 공용 컴퓨터실을 개관했다. BSC실은 학과실습실 2개와 학생자치공간 10개를 통합한 것으로, 4개 단과대 자치공간이 줄어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집단 사이에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은 학생들이 부담없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효율적 공간 활용이었다는 평이다. 뿐만 아니라 분산돼 있던 실습실을 '센터화'함으로써 실습실습 기자재를 중복구입할때 생기는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했다. 또한 통합 관리로 관리인력을 감소해 절약한 예산으로 실습공간의 시설과 관리에 투자할 수 있었다.

실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미국의 명문 대학들은 문화·복지의 개념을 갖춘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개방적 성격을 띤 이들 센터는 모든 학생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회의장으로 사용된다.

이와 관련해 본교 시설관리팀의 이천종 팀장은 "소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학과실의 경우 합상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좁은 공간을 분할해서라도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의 건의가 있다면 통합운영을 고려할 방침"이라며 조심스럽게 학생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통합운영방식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사범대 학생회의 이문희(수교3)양은 "학생회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학생회실은 독립되어야 한다"며 공용화 때문에 학생자치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학생자치공간의 성격 변화로 학생자치가 약해지고, 사람들간의 유대가 약화되며 대학문화가 단절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공간이 갖는 배타성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소아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새롭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인 만큼 학생들의 원활한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손상민 기자
ne08292@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부주간	백승석	이메일	dgpress@naver.com
편집국장	박상관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편집장	김진아	구독문의:	(02)2260-3491 · 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경주캠퍼스 (우)17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68 팩스 (054)770-2067

동약론

진정한 선거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학생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난달 총대의원회 선거를 시작으로 온방골은 한창 선거 분위기로 들떠있다. 수업이 끝나고 해가 질 무렵, 학생들의 이동이 잦은 학교 정문 입구와 각 단체 건물 입구에서는 차기 학생회·자치기구에 입후보한 후보자들과 선거운동원들은 학생들을 향해 각기 선거공약을 외치며대며 유세활동을 벌이고 있다.

“어! 이상하다. 분명 우리 단체 회장인데, 뭐하고 있는 거지?”

마침 지나가던 두 학생이 선거공약을 외치는 운동원을 놀란 듯 지켜보고 있다. “아직 임기가 남은 걸로 아는데 선거운동을 해도 되는 건가?”

“학생들에게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한 학생회장이 다른 학생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돼” “차기 학생회를 위해서 이전에 맡았던 일은 어찌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한숨짓는 두 학생은 이러한 선거풍토를 비난이라도 하는 듯 냉담한 모습이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새 학생회와 자치기구를 건설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학내 는 어수선하다.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후에는 공약사항들을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온방골의 학생회 선거는 단지 ‘당선’만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학생회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면서 학생회 혹은 자치기구 선거에 뛰어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선거운동원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학생회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가 록하기도 하지만 당선과 함께 학생들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킬 수는 없는 것인진.

‘당선’을 위한 선거보다 ‘책임’이 따르는 선거가 참 선거가 아닐까?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2000 전국노동자대회

구조조정 반대
노동법개악 반대
노동시간 단축



지난 12일 2만여 노동자들이 신자유주의 반대·고용보장 등을 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 열사 30주기를 맞아 열린 전국노동자대회는 대우 자동차 부도, 건설업체 퇴출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대 시위로 진행됐다.

지난 12일(일) 민주노총 주최로 대학로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와 학생 약 2만 여명은 △월차·생리휴가 폐지 등 노동법 개악 중단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근무제 2001년 전산업 동시 도입 △대책없는 실업대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중단 △전체 노동자의 53%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지 30년이 지났지만 안타깝

게도 노동정책은 30년 전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권의 노동 정책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 퇴출과 관련해 건설산업 연맹 이용식 위원장은 “정부의 고의적인 건설업체 죽이기와 관치금융, 정경유착으로 노동자들만 죽어나게 생겼다”며 “공적자금을 빨리 건설업체로 투입해서 국가 기반 사업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71세)여사는 “노동계가 사분오열 하지 말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진정한 노동해방의 날이 온다”며 “힘든 투쟁의 현실을 단결하여 승리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11.3 기업퇴출로 노동계는 1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대회에 참가한 박현수(43)씨는 “그 동안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며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에게 정부는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고용보장도 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생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자동차·건설·공기업·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노동법 개악반대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며 오는 29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전노조 찬반쟁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연대해 오는 28일(일) 공공부문 노동자 집회를 진행하고 29, 30일 양일간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를 만나

“30년 지났어도 아들의 소원은...”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30주년 추도식’에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71) 여사를 만났다. 자기의 못 다 이룬 꿈을 이뤄달라는 아들의 부탁에 노동운동에 뛰어들어 이 여사는 전 열사의 소원이었던 청계복노조를 결성해 노동교실을 운영했고, 동일방직과 YH노조 활동도 펼치며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해왔다. 때문에 몇 차례 목살이를 겪기도 했던 이 여사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노동현장과 농성장을 찾는 시간을 제외하고 집에 머물고 있다.

은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노동자와 함께 투쟁하는 대학생들을 보면 어떤가.
- = 대학생들에게 고맙다. 아들의 유언 가운데 하나가 “학생과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 한다”였다. 사실 노동자들의 투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면 적박한 노동현실과 싸우게 된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보다 많이 투쟁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 전 열사가 살아와 이 자리에 있다면.
- = 노동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절대 두 쪽으로 나뉘어서는 안된다.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주장을 요구할 때만이 노동자들의 투쟁은 성과가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



전태일 열사 어머니 이소선 여사.

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보면 불 속에서 죽어간 아들의 절규가 떠오른다. 젊었을 때는 노동운동을 하느라 바빠서 그럴 겨를이 없었는데 늙으니 아들이 보고싶다.

- 향후 계획은.
- = 아들의 부탁을 이루려면 아직 멀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지만 앞으로도 노동자들과 늘 함께 할 것이다. 당장은 어제(12일) 노동자대회에서 다친 노동자들을 문병할 계획이다. 하루 빨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보고싶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조선일보 바로알기 시민강좌
진중권 “박정희와 조선일보”

‘거짓’으로 지켜온 기득권

박정희 신드롬·반공사상 만들어

“조선일보는 독재정권에 붙어 권력을 키워왔다. 조선일보는 아직도 ‘박정희 신드롬’을 만들어 과거 행태를 적극적으로 변명하기 위해 폼부림치고 있다”

지난 10일 ‘조선일보 바로알기 시민강좌’ 네번째로 ‘네 무덤에 침을 뱉으라’의 저자 진중권씨의 강연이 열렸다.

진중권씨는 조선일보가 만들어낸 ‘박정희 신드롬’과 ‘거짓 이데올로기’를 ‘우익 신통기 만들기’라는 말로 표현했다. ‘우익 신통기 만들기’란 우익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 조선일보는 신문 그 이상의 권력으로 언론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산당이 싫어, 기득권이 좋아!” 조선일보의 ‘우익 신통기 만들기’를 진중권씨는 한마디로 요약했다.

“공산당이 싫어”

진중권씨는 조선일보의 ‘우익 이데올로기 만들기’의 핵심은 ‘반공사상’이라고 말한다. 수구보수세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빨갱이’라는 공격적 표현으로 붙여붙이는 것. 조선일보는 ‘사상검증’으로 최장집 교수를 비롯해 송두율·이장희 교수 등 번번이 진보적 인사들을 낙마시켰다. 이같이 조선일보는 ‘사상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반공’으로 무장한 것이다. 진중권씨는 “조선일보의 사상도 한번 검증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반박했다.

“기득권이 좋아”

조선일보의 우익 이데올로기 만들기 두 번째는 “기득권이 좋아!”이다. 진중권씨는 조선일보가 억지 영웅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유신-이순신-정조-이승만-박정희의 통시적 영웅 계보 속에 한국 우익 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에 연재된 박정희 위인전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계보를 통한 조선일보의 박정희 찬양은 이렇다. 김유신은 화랑도 정신으로 영웅이 되었고, 박정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았다. 이순신은 다른 사람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혼자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만들었다.

조선일보는 박정희가 전쟁준비를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함하고 박정희의 전쟁준비는 이순신의 유비무환장신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임금이 정조임금이 독재자였다. 조선일보는 정조의 독재를 정당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켰으니 독재가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마지막, 조선일보가 애국으로 표현하는 이승만의 국가주의론을 박정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국가주의론은 국가를 위해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조선일보는 이 네 명의 ‘영웅’을 모두 모이놓은 사람이 박정희라며 신격화 시켰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거짓이데올로기를 만들고 ‘신문 그 이하의 신문’이기를 자초했다며, 다시 한번 조선일보 반대운동은 극우보수와 진보와의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정리=김현정 기자
telle@mail.dongguk.edu

박물관 근대 한국학 자료전

민족의식 되살린 선인들 발자취 담아

한국학 전분야 포괄 전시 ... 민족문화 재조명의 장

본교 박물관은 새천년 첫해의 가을 기획전으로 '근대 한국학 자료전'을 마련하여 전시하고 있다. 본 기획전은 백동(白洞) 황순구(전 본교 한문학 교수) 소장 자료를 바탕으로 근대 한국학 분야 석학들의 저서와 유묵·유필 등으로 준비되었다. 불교학·국사학·국어학·국문학·미술사학·고고학을 중심으로 기타 법학·교

육학·국악·서지학·민속학·의화학 등 포괄적인 한국학 연구 분야를 전시 대상으로 하였다. 전시물은 총 71명의 유품 원고와 각종 자료 187점 703매와 저서류 335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획전은 근대적인 연구방법론에 입각하여 한국학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1900년대 이후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민족 문화의 정체성을 재조명하고, 지난 한세기 동안 이루어진 한국학 분야의 선구적인 연구 업적을 뒤돌아보는 자리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우리는 이 기획전을 통해 당시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적 위치를 가진 학자들이 단순히 근대적인 연구방법론에 입각하는 모습에 머물지 않고, 일제 치하 암울했던 사회 현실에서 민족 정기를

밝히는 정신적 등불이 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곧 이들은 일제의 어용 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한국학 연구를 극복하고자, 일종의 독립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서부터 박은식 선생이 지닌 독립 정신의 한 편린을 살펴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는 1925년 임시정부의 제2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실질적인 독립 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기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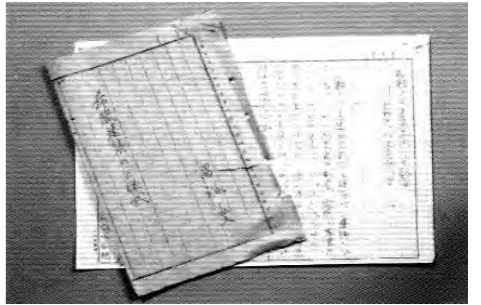
우리말본, 국문학 연구 개척자 역할 한국통사, 역사연구로 독립정신 고취

혼신을 다한 연구 활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이러한 초기 한국학 연구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자료가 바로 한민족의 자긍심을 역사 연구를 통해 되찾고자 했던 박은식 선생의 '한국통사(韓國痛史, 1915년 출판)'이다. 우리는 통사(痛史)라는 서명에

국어학 분야에서는 국어 문법 체계를 확립하고 국어와 한글 운동의 실천가라는 학사적 평가에 걸맞게 민족의 수난기에 민족 중흥과 민주국가의 건설을 외친 최현배 선생의 집념이 표출된 '우리말본'(1937년 출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통사 우리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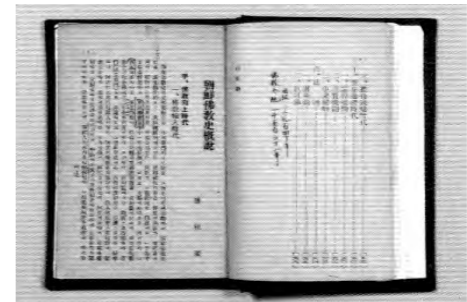
조선상고건축미술의 계통론

에서 우리 미술사와 미학을 처음으로 학문화하였지만 40세의 젊은 나이로 병사한 고유섭 선생이 있다.

또한 한국 미술은 자연 그대로일 때 가장 아름답다는 지론을 가지고 미술사학을 연구하였으며 국내에서 한국 미술의 이해와 보존·진흥에 이바지하였던 최순우 선생의 유품과 저서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고고학 분야로는 불모지에서 박물관을 교육하고 연구 기관으로서 기틀을 다지며 한국 문화 선양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김재원 선생과 고고학계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더 나아가 미술사학과의 학술적 접목을 시도하였던 김원룡 선생의 유품과 저서 등이 전시되어 있다.

김병근 박물관 연구원



조선불교사개설

셰익스피어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 문학 번역의 현실

“잘못된 번역은 작품에 대한 반역!”

국내 번역 잘못된 사례 많아 ... 창조성·정확성 기울여야

셰익스피어는 우리 나라에 최초로 그 작품이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작품이 완역되어 소개된 최초의 서양 작가이기도 하다. 1923년 현 철이 번역한 '햄릿'이 나온 후 그의 작품들은 꾸준히 번역되다가, 셰익스피어 탄생 4백주년이 되던 1964년 두 개의 다른 완역본이 나오면서 셰익스피어 작품의 한국 수용에 한 획을 그었다. 이후 셰익스피어의 극작품은 꾸준히 새로이 번역되고 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 작품의 번역은 여타의 문학 작품 번역에 비해 번역자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연스럽지 못한 존재어법 등도 여전히 눈에 거슬린다. 60년대의 번역본과 오늘날의 번역본을 비교해보면, 고어투의 표현이 많이 고쳐지고 한자어의 사용도 현저하게 줄었지만, 여전히 자연스럽지 않게 읽는 데 걸림돌이 되는 번역들이 남아있다.

특히 선전의 유행을 보고 난 뒤, 햄릿이 덴마크가 온통 혼돈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는 저 유명한 대사, "The time is out of joint."는 아직도 많은 번역본에서 초기의 번역본을 좇아 "지금 세상은 사개가 물러나 있다."라고 옮기고 있다. 그러나 '사개'라는 단어는 요즈음엔 거의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작품의 주제와 직결되는 대사의 의미를 놓친 채 지나가고 말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지적했듯이 셰익스피어 극작품 번역의 경우는 다른 작가들의 작품에 비

해 그 사정이 현저하게 나은 편이다. 일역의 중역에 의존해 온 번역 관행이 여전히 완전히 극복되지 않고 있고, 충실한 번역에 대한 무관심과 번역작업과 번역자에 대한 출대가 오역을 부채질하고 있다.

또한 번역 이론과 현실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것 역시 오늘날의 적박한 번역 현실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에도 '번역학'이 소개되고, 서구에서 정립된 '번역학'의 이론들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그런데 '번역학'은 번역에서의 '정확성'이란 어느 누구도 따질 수 없는 기준이며, 오직 '용인성(acceptability)'이 그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번역 행위란 문화 대 문화의 전이이므로 번역자의 '창조적' 역할이 인정되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번역자의 고질적인 불성실과 무책임이 여전히 횡행하고 불성실한 역자들이 내놓는 자연스럽지 못한 번역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우리의 번역 현실에 비추어보면, '정확성'이나 '충실성'이란 다소 고루해 보이는 기준은 번역 작품을 평가하는데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의미있는 기준일 것이다.

조영미
경원대 영어영문학과 강사
영미문학연구회 운영위원



구송희 교수의 환쟁이야기

(5) 기후변화협약의 부도덕

지난 1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최대 규모의 환경회의인 '기후변화협약 제6차 총회'가 개막되었다. 여기서는 97년 교토에서 채택된 CO2 등 각종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확정한다고 한다.

CO2 등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화석물질들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한다는 주장은 지난 1천여년 동안 변화가 없던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급증했고, 지속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다는 과학적인 확인으로 기정 사실이 되고 있다.

실험과 계측 뿐만 아니라, 98년 양쯔강 범람, 97~98 엘니뇨 등 기상 재앙을 통해, 그리고 해수면 상승, 질병의 확산, 작물의 작황변화로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해결은 쉽지 않다. 선진국의 주장대로 전세계가 공평하게 CO2 배출량을 줄일 경우, 뜻사는 나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나아가서 이런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오염배출권 거래제도'이다. 이는 선진국 CO2를 기준치보다 적게 배출하는 저개발국의 배출권을 구매해서 기준치 이상의 배출을 허용하는 주장이다.

저개발국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오염물질을 그만큼 적게 배출하고, G7 국가는 많은 유해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저개발국의 오염배출권을 사서 산업 생산을 늘리고, 저개발국은 선진국으로부터 지구의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은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그렇게 함으로써 대기에 방출되는 CO2의 총량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환경정책의 핵심 사안으로 오염의 배출에도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환경보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럴듯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지구환경보호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도 부도덕해도 된다는 심각한 부정의가 숨어 있다. 미국이 제안한 이 제도는 환경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CO2 배출권 구매비용은 일종의 환경오염 '벌금'인데, 환경문제가 벌금을 댄다고 해서 해결되는 양기 때문이다.

저개발국들이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국제기준에 맞게 줄여야, 미국 등 선진국의 큰 자택의 벽난로에서 대신 배출된다. 그리고 선진국은 엄청난 양의 장작을 태울 권리를 '벌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저개발국 사람들은 여전히 모닥불로 겨울을 나야 할 것이다.

오염배출권 거래제도는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가 저개발국의 경제에 불리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인도, 브라질, 멕시코 등이 자국민의 인간적 권리(큰 벽난로에 엄청난 장작을 태울 권리)를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G7 국가들은 이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선진국이 저개발국에게 강요하는 에너지 및 환경정책은 설명 그것이 성공하여 모든 나라가 '자원절약형 경제구조'로 이행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감시하는데 드는 비용, 이에 반대하는 나라들이 미국 등 강대국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지출하는 전장적비비용을 계산하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이런 사태는 미국과 이라크 사이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면 기후변화협약은 '에너지 사용이 풍요로운 몇몇 나라를 위한 환경정책'이라는 비난은 정당하다. 인류가 진실로 지구 환경을 걱정한다면 나라마다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것인가를 논하는 현행의 국제 환경정책은 현재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얼마를 남겨 주어야 하나, 다시 말해 에너지 소비에 관한 국가간 공정 분배보다는 세대간 분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연구 현장을 찾아서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개발

기업업무 시스템 하나로 제어

정보기술 이용 인프라 구축 ... 인력 예산 낭비 줄여

최근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정보기술이다. 많은 기업들은 선진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 정보시스템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이다.

이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기업의 물품생산부터 출하까지 일련의 공급망과 회계처리, 인사관리를 포함한 기업의 기간업무를 지원하는 통합정보 시스템이다. 따라서 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 경영정보시스템 통합관리기능에서 나타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술도입은 막대한 투자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중소기업은 염두도 못낼 실정이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 위주로 구축돼 있다. 또 대부분이 외국산 ERP로, 사실상 우리 기업에 업무환경에 맞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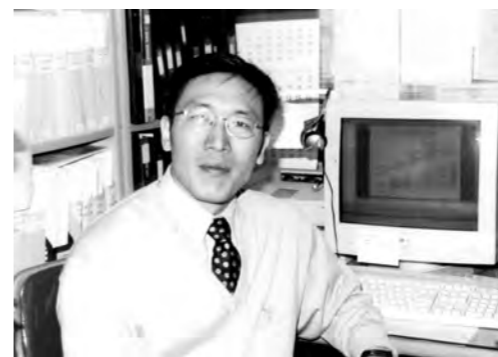
하지만 경주캠 정보산업학과 문태수 교수가 주축이 돼 창립된 아인정보기술 연구진이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국내 업무환경에 적합한

Ain-ERP를 개발했다. 현재 아인정보기술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가능성을 인정받아 창업자금을 지원받고 경주캠 창업보육센터에서 연구중에 있다.

Ain-ERP의 특징은 외국산과 국산 ERP의 특성을 차별화해 도입한 국가별, 업종별, 특정기업의 조직문화를 통합한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업무에 적합한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투자예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개발과정에서 문태수는 "정보기술에 대한 응용능력과 이해가 빠른 전문인력이 부족해 연구가 힘들었다"며 인력확보가 지금까지 어려운 실정이라 전했다.

앞으로 아인정보기술진은 ERP시스템에 XML(차세대웹언어)의 기반을 둔 전자문서교환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개발해 공급망관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링크를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해 문태수는 "다음 해에는 ERP와 데이터웨어하우스(DW), 고객관계관리(CRM) 소프트웨어를 차례대로



문태수(경주캠 정보산업학) 교수.

로 개발해 차세대 ERP라 불리는 EMS(전자전송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라 말했다.

이제 ERP기술은 기업의 통합정보시스템 개념만이 아니라 전자 상거래 기반의 핵심으로서 그 수요가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김남정 기자
hanaby37@mail.dongguk.ac.kr

달하나 천강에 한용운의 힘



윤석성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원동력이다. 내가 보기에 '님의 침묵'은 범 열의 시집이라기보다 슬픔의 시집이다. 개인의 감성적인 슬픔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함께 아파하는 동체 대비적 슬픔 말이다.

'님의 침묵'의 힘은 역설에서 발휘된다. 현재의 이별이나 슬픔이 영원한 것이 아니며 더 큰 만남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그래서 '이별은 미의 창조'를 노래한다.

만해에게 있어서 정한이나 눈물, 죽음 등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생을 위한 근원적 에너지이다. 끝없는 부정에 의한 대극점의 역설을 이 시집은 감각하고 있는 것이다. 만해를 영원한 젊음이라 일컫는 것은 그의 이러한 끝없는 부정정신, 지금 여기의 부당한 현실을 투철히 인식하고 이를 타파하려는 불퇴전의 용기를 이룸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과 용기가 암흑시대에 그를 길 잃지 않게 했고, 항기로운 이듬을 후세에 오래 전하게 했을 것이다.

'님의 침묵'의 신념과 희망의 메시지는 80년대 중반 고난에 처했던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 주었고, 속된 유희에서 나를 지킬 수 있게 해 주었다.

'결집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는 지금도 나의 변함없는 좌우명이다.

내가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을 본격적으로 접한 것은 80년대 초반이었다. 그 이전에도 이 시집이 범상한 시집이 아니고, 특유의 포용력으로 독자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때만큼 절실하게 읽혀지지는 않았다. 아마도 80년대의 억울한 분위기가 이 시집의 존재 가치를 돋보이게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시집에서 먼저 느낀 것은 더할 수 없이 커다란 슬픔이었다. 바다와 같이 크고 깊은 슬픔이 나를 엄습했다. 도처에서 실의와 고통의 목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과 실의 가운데서도 이 시집의 화자인 '나'는 신념과 희망의 길을 일관되게 가고 있었다. 필자가 비극적 지향성이라고 규정할 신념과 희망의 길 가기는 그 당시 많이 아프고 답답했던 나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었다.

신념과 희망을 잃지 않은 '나'에게 작용하는 정서는 그리움과 기다림이다. 그리움과 기다림이야말로 극한상황에서도 '나'를 절망하지 않게 하고 새벽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피어싱 · 타투, 표현하거나 비난하거나

개성 표현 VS. 저질 논란 ... 객관적 시각 필요

“뿔어!”

10년전만 해도 동네 골목골목을 다니며 번기나 하수구 뿔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외침을 쉽게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항상 막힌 곳이 쉽게 뿔리도록 해주는 연장이 들려있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뿔어야 할 곳은 비단 막힌 번기나 하수구만이 아니다.

최근 '뿔음의 거리'로 대변되는 이대 앞 · 신촌 · 압구정 등을 지나다보면 귀, 코, 눈썹, 입술, 혀 등에 피어싱(Piercing)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의 타투로 장식한 젊은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

피어싱은 아프리카 원주민, 일부 힌두교도 등이 종교의식의 하나로 신체 일부분을 뿔는 행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80년대 말에는 영국 패션계에서 인정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오랜 옛날이나 미개 사회에서 신분과 시와 장식용 혹은 악마를 쫓기 위한 주술적 의미로 사용되었던 타투가 현대 들어서 자기 개성표현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어싱과 타투에 대한 기성세대의 눈길이 좁지만은 않다. '신체발부수지부모'라고 생각하는 기성세대가 '내 몸은 내꺼'라는 젊은 세대의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사자까지 싸잡아 저질이라고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치우쳐진 비판에 앞서 피어싱과 타투에 대해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전, 노예문화·저항문화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피어싱과 타투는 "피어싱은 남들과 다르길 바라는 젊은이들의 또다른 표현일 뿐"이며 "어떤 것이든 낯선 것이 유입되면 처음에는 그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어싱 역시 논란거리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피어싱 가게 한 점원의 이야기처럼 새로운 문화코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우려의 소리로 높다. 피어싱과 타투에 무조건적으로 빠져드는 매니아층이 출현하고, 심지어 지난 15일 이대 앞 '주노'라는 피어싱 가게에는 자기애 완건의 귀에 피어싱을 해주고 싶다고 찾아온 매니아까지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피어싱은 잘못하면 상처 부위가 단단해지고 커져거나, 심지어는 어린아이 주먹만하게 붓는 '켈로이드성 비후반흔'이 생기는 것은 물론 피어싱 기구가 위생적이지 않을 경우, 간염, 에이즈, 매독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도 있다.



피어싱과 타투를 한 젊은이들과 피어싱에 쓰이는 피어싱.

때문에 미국에서는 피어싱이나 타투를 할 수 있는 연령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의 것이라 치부했던 피어싱과 타투는 어느새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선호나 비난은 아직 이르다. 피어싱과 타투를 객관적인 잣대에서 문화의 한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신명나는 동네연극 한마당

밀양 종합연극촌 ... 문화 독립 꿈꾸는 장소로



경남 밀양시 북북면에 자리잡은 밀양연극촌.

밀양으로 향하는 길은 양옆에 감나무가 즐비하다. 그렇게 감나무 길을 한참 지나다 보면 산 좋고 물 좋기로 소문난 밀양에 도착한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어디선가 따스함이 묻어 난다. 특별한 '마을(村)'이 열기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밀양에 자리잡은 특별한 마을은 지난해 9월 북북면에 있는 폐교 월산초등학교에 자리잡은

밀양연극촌이다. 부산 영화단 거리패와 서울의 우리 연극소가 손을 잡고 세운 밀양연극촌은 한마디로 연극을 만들어 내는 제작소이다.

연극에 참여하는 모든 배우와 진행자들은 이곳에서 함께 먹고 자고, 훈련하고 공연한다. 뿐만 아니라, 따로 제작비를 들이지 않고 무대나 의상, 소품, 음악까지 자급자족하고 있다. 바로 독자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종합 연극현장이자 삶의 현장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밀양연극촌에는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너댓 살 어린아이부터 칠순 노인까지 모여든다. 공연 도중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르신네의 기침 소리가 무대를 울리기도 한다. 그럼에도 동네극장 연극이 주는 긴장과 해방감은 순간적인 당혹감을 말끔히 씻어 버린다.

연극은 이를 없는 대중들과 함께 숨쉴 때 건강하고 순수한 것이 된다. 그동안의 우리 연극은 연극성을 포기하고 일부 지식층을 위한 놀음으로 그 영역을 제한시켜 왔다는 비난을 들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밀양연극촌의 시도는

긍정적이며 바람직한 방향 선회로 받아들여진다.

신명이 실려있지 않은 연극은 관객들에게 외면당할 수 밖에 없다. 밀양연극촌의 동네극장은 바로 '신명'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연극계는 서양 연극에서 수입된 근대성 미학에 빠져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외면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극의 원초적 힘인 신명도 자연스럽게 억압되어 왔다.

하지만 밀양연극촌은 자신있게 우리 연극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명이 녹아 있고, 무엇보다 대중이 함께 하는 연극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연극을 통해 문화 독립을 꿈꾼다는 이윤택(밀양연극촌 대표)씨는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간과 연극 공동체가 필요했다"며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아시아 연극제를 주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제 밀양연극촌은 삼삼오오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의 행렬로 활기를 더해간다. 잠시 후 이곳은 한바탕 웃음이 쏟아지고 구수한 정겨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세속을 벗어나 열린 무대에서 펼쳐지는 신명난 동네연극은 우리 문화도 '신명'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는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클릭! 리포트를 다 베껴라?

지난 달, 서울시립대 대학원생 이명원씨가 서울대 김윤식 교수의 논문 표절에 관한 책을 발간, 논쟁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 있었다.

이는 한동안 잠잠하던 한국사회의 표절문제와 표절이 학문연구에서도 비껴갈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학문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 사회에서도 표절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대학 내 표절 문제는 리포트 베껴 쓰기에서 가장 심각성을 드러낸다. 리포트 베껴 쓰기는 한때 성행하던 리포트 대행 아르바이트가 인터넷 보급에 힘입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확산된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리포트 관련 사이트는 백여 개에 달하고, 사이트에 등록된 자료 당 다운로드도 평균 전회를 육박하고 있다.

본래 리포트는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부여한 과제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 작성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요즘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단지 리포트 제출만을 위한 자료를 검색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다운로드 리포트를 그대로 제출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본교의 경우, 여러 명의 학생이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리포트를 제출해 담당교수로부터 지적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과제로 나온 창작품

까지 인터넷에 오른 것을 다운받아 그대로 제출하는 학생들 때문에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었다. 이것은 리포트를 직접 쓴 학생이 리포트를 다운받은 학생보다 낮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야기하기도 하여 과제를 직접 해결한 학생에게까지 '직접 쓰면 손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줄 수도 있는 문제이다.

이처럼 리포트 베껴 쓰기는 그리 간단하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무엇이든 쉽고 빠르게 마무리 지으려는 젊은 세대들의 인식과 함께, 인터넷에 올려진 자료를 무조건 맹신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리포트를 다운로드 제출하는 것을 묵인해 온 교수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캠퍼스 내의 리포트 베껴 쓰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먼저 학생들은 리포트를 진정한 학습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교수들은 단순지식의 나열이 아닌, 반복 출제되는 리포트가 아닌, 창의성을 요하는 차별화된 과제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때서야 비로소 학문과 진리의 상아탑이라 불리는 대학의 본모습을 되찾을 것이며, 보다 활기차고 창조성 넘치는 대학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매체비평

- 라디오 편

'MBC FM 만화열전'

“라디오를 들으면 만화가 보인다? 만화는 듣는게 아니라 보는 거라니까”



MBC에서 운영중인 '만화열전' 홈페이지.

하나의 매체 안에서의 장르파괴는 물론 매체간 경계도 허물어지는 퓨전문화가 유행하기는 하지만 '보는' 만화로 '듣는' 라디오 드라마를 만드는 시도는 모험이 아닐 수 없다.

때, 비주얼 이미지가 핵심인 만화를 소리로만 전달하겠다는 라디오 드라마 '만화열전'의 도전을 어떻게 봐야할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밤 9시40분부터 20분간 MBC 라디오(AM 900kHz, 표준 FM 95.9MHz)에서 방송하는 '만화열전'은 잃어버린 라디오 드라마의 인기를 되찾아줄 구원투수로 지난 4월 17일 첫 발문을 열었다. 단행본으로 2백만부 이상이 판매된 대형 베스트셀러 '열혈강호' (전극진·양재현 작)를 시작으로 박희정의 '호텔 아프리카', 황미나의 '레드폰', 김수용의 '합합', 강정욱의 '라비엠 폴리스', 김영희의 '바스카', 그리고 현재 방송 중인 고우영의 '삼국지'에 이르기까지 무협, 순정, SF, 학원물 등 다양한 장르의 인기 만화를 두루 섭렵하고

있는 중이다. 소설이나 만화를 영화화한 사례가 적지 않지만 성공한 예는 많지 않다. 무한한 상상력에 기반해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추상적인 이미지의 이야기를 구체적인 형상으로 옮겨 놓았을 때 느끼게 되는 상상력의 한계로 인한 답답함과 규격화된 주인공들의 캐릭터에 대한 불만이 재미를 반감시키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만화열전'의 시도는 성공적으로 보인다. 라디오에서 더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가수 김장훈, 유희열, 신승훈, 배철수 등이 차례로 작품의 나레이션을 맡아 팬들을 모으고 있고, 코믹요소를 가미한 나레이션과 성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듣는 재미를 준다. 홈페이지 시청자의견 코너에도 라디오 팬들 뿐 아니라 원작만화 팬들까지 "참신하고 재미있다"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아쉬움도 많다. 라디오 방송용으로 각색하다보니 원작의 이미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화도 문학장르에 속합니다. 스토리가 있고 대사가 있고 시가 있는, 거기에 회화적 요소가 가미돼 제 9의 종합예술로 불리죠. 특히 순정만화는 언어사용에서 작가 특유의 문학적 운용마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심혈을 기울인 흔적이 보이는 작가의 특색을 담아내고 있죠. 남의 '작품'을 손대면서 그 작가의 작품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가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라는 시청자의견처럼 만화가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채 작품이 소개될 경우 청취자들에게는 원작과는 다른 이미지의 작품을 기억하게 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소개된 만화들이 대부분 장편인데 20여분짜리 2~30여회 분량으로 축약하다보니 원작을 모르는 청취자들에게는 즐거리 파악이 쉽지 않은 것도 흠이다. 대중문화의 한 장르로 만화가 평가받기 시작하지 오래되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고전적인 공중파 매체인 라디오 방송에 만화가 입성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만화는 '보는' 맛이 제격이다. **조은숙** 매체비평 우리스스로 부장

무엇이 인터넷 바다를 출렁이게 하는가

엽기·음란 사이트 윤리성 논란 ... 자유 아닌 방종 경계해야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 'U-571'이라는 영화가 있다. 바다 깊숙한 곳에 떠 있는 잠수함에 벌어진 일을 그려낸 이 영화를 보다보면 중간중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있다. 적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 작전으로 잠수함 안의 필요없는 물품을 버리는 장면이나 영화 마지막에 수명을 다한 잠수함을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다. 영화 촬영시 이러한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처리했다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긴다면 바다 환경이 오염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바다는 오염되고

바다의 오염은 오프라인 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정보의 바다 인터넷 사이트의 오염도 심각한 상태이다.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여러 종류의 인터넷 사이트가 덩달아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인구 증가는 갈수록 도를 지나친 인터넷 사이트들을 양산해 내기 시작했다. 엽기 신드롬 바람을 타고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각종 엽기 사이트는 말할 것도 없고, 변태행

각이 주를 이루는 음란 성인사이트 등이 시대 정보의 바다는 오염된 물질을 떠 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봉착한 것이다.

엽기와 음란물결 출렁이는

바로 엽기 사이트가 이러한 선두에 있다. 올해 신세대 문화 화두인 엽기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엽기 소설, 엽기 만화, 엽기송 등 어느 문화 장르든지 엽기라는 단어를 수식어로 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인터넷 사이트 역시 다르지 않다. 엽기 메일이 난무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엽기 사이트가 생겨나는 것이다. 초기 엽기사이트가 사적인 의미의 엽기와는 다른 '특이한 방법으로 유쾌함을 주는 것'이라는 인터넷상 엽기를 표방하던 했지만, 현재는 각종 반비밀의 사진을 전시에 놓거나, 토사물을 주물럭거리는 동영상자료를 올려놓는 등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여기에 음란 성인사이트까지 가세하고 있다. 야동(야한 동영상), 야애니(야한 애니메이션) 등 음란물을 주로 다루는 성인사이트들은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노출되는 것은 물론, 가입절차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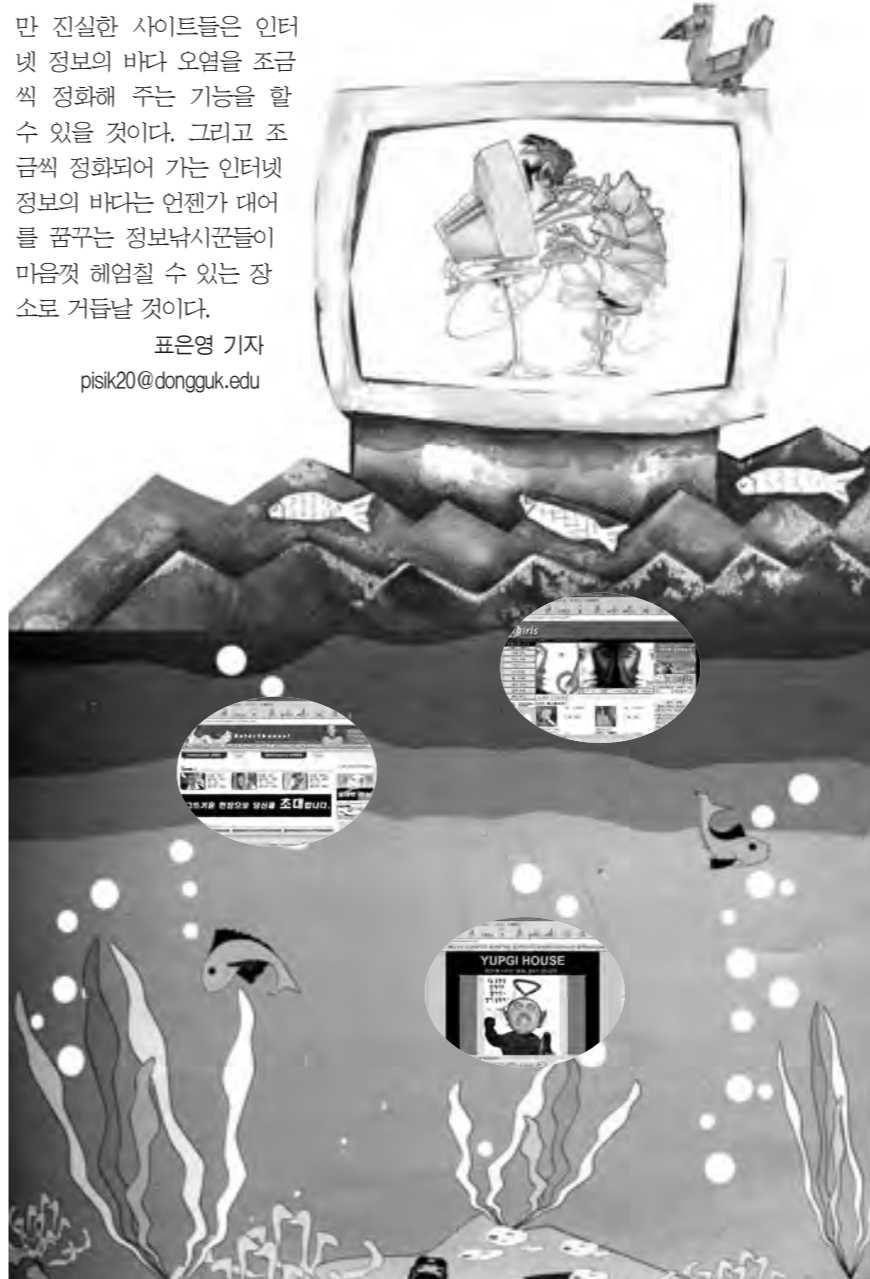
허술한 부분이 많다. 여기에 최근에는 성인전용 인터넷 방송국까지 생기자 보니 인터넷상 음란물 세상은 끝이 없어 보인다.

내가 팔려가고 있다

비단 문제는 이것뿐만 아니다. 인터넷상에서 자기 신상정보가 타인 손에 들어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다. 유령사이트를 개설해서 가입자를 모은 뒤,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타회사에 유출한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구속되기도 했고, 지난 9월에는 한솔닷컴과 한국통신프리텔이 제휴회사인 삼성카드에 이통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넘겨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다.

바다 한구석 보물섬

하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인터넷 정보의 바다 한구석에 자기 자리를 조금씩 넓혀가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운동인 '태권도' 관련 사이트가 시드니 올림픽을 계기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 우리 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희귀병 '쇼그렌증후군'에 관한 홈페이지가 생겨난 것이다. 비록 사이트 개설의도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하나, 둘 생겨나는 소박하지



도가 지나친 인터넷 사이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 △ 인터넷은 자유로워야 한다.
 - △ 고로 '남이사'
 - △ 안가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싫으면 안보면 된다. 엽기가 요즘 나쁘게 표현되는데 보는 사람의 입장 차이일 뿐이다.
 - △ 종종 도움이 되기도 한다.
 - △ 노란국물>다이어트 효과
 - △ 똥이면 똥짓 똥고 생각하는 사람은, 똥 때문에 망할 거다(성인사이트).
 - △ 노란국물 여자 인간적으로 너무 못생겼다.
 - △ 말세여! 말세
 - △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 △ 도통했다~나는 경멸한다.
 - △ 나는 이제 다 봤다. 이 소릴 들은 여자친구가 나보고 변태란다. 쨌장 다신 안본다.
 - △ 신기하지만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 △ 질문 자체에 문제가 있다. 도가 지나친다는 것이 나쁘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문제의 사이트들이 현재 도를 넘어섰는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이다.
 - △ 인터넷은 자유다! 간섭할 필요없다. TV가 아니다.
 - △ 호기심 충족!
 - △ 아무리 궁금해도 안보면 될 것 아냐?
 - △ 사흘동안 밤이 안 넘어 갔다. 다이어트에 도움 주는 사이트.
- △ 자료수집은 어떻게? 존경합니다.
 - △ 선택권은 자유다. 보던지 말던지.
 - △ 즐기는 사람이 있으니 존재하는 것 아닌가요?
 - △ 저!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사이트를 도대체 누가 만든 거예요?
 - △ 여기에 나오는 배우들은 다 초인이다.
 - △ 으~ 가르쳐 줘요. 저도 이 사이트를 꼭! 보고 싶어요.
 - △ 헉! 전... 전... 정말 안 봤어요, 정말이에요.
 - △ 보고 안 보고는 내가 결정한다. 누구도 비판 따윈 할 수 없다.
 - △ 엽기는 충격이 아니라 신선한 발상 전환이다.
 - △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 △ 이런 것들... 더 UP된 걸 보려면 검색어 warez를 찍어라.
 - △ 이런 사이트 있으면 고맙지 뭐~
 - △ 당신들은 실수한 거다. 그렇지 않아도 한창 이러한 사이트가 문제되고 있는 판국에 이런 자보를 내보내다니...
 - △ 인터넷에서만은 자유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 △ 청소년들이여~ 제발 보지 마라.
 - △ 한 번 빠지면 절대 헤어날 수 없다. 특히 성적인 부분은...

메아리

후원자

▲지난 15일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치르기 위해 전국의 수험생들은 발걸음을 바빠 움직였다.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선생님, 학부모, 모교 선배들도 예전처럼 수험장 앞에서 팬과리, 북을 두드리며 북이 터지도록 응원을 했다. 학교에서, 학원에서, 독서실에서 오직 이날을 위해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이러한 응원은 따뜻한 힘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이런 이러한 응원도 그 열기가 식을 것 같다. 점점 쉬워지는 대입수능시험 문제로 시험의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각 대학들이 대입에 대한 절실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이렇게 변별력이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대입수능시험은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에 모교 후

배나 선생님들의 수험장 앞 응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사교육의 열풍으로 공교육이 죽어간다고 한다. 단지 대학입시를 위한 수능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의 교육현실에서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학교 수업을 마치면 교문 앞에서 대기하던 학원 차에 오르기 바쁜 수험생들은 이미 학교 수업보다 소수정예와 쪽집게 강사에 훨씬 익숙하다. 사교육은 수능에 대한 격

과 과 부담을 해소시켜 주는 든든한 후원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수험표가 붙어 있는 책상 앞에 앉아서 대입수능을 치른 수험생 대부분이 학원에서 요약해준 자료를 머릿속에 암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번 해 수능성적은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수능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매년 사교육 현장에서 배출되는 인물들이란 소리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수험장 앞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는 선배들이나 선생님들도 학원 출신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죽어 가는 공교육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지금의 상황에서 올해로 대학수능능력시험을 종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 김미영 편집부장 candy@mail.dongguk.ac.kr

자유인사

학교 안에서

연극학과 졸업공연

서울캠 연극학과가 졸업작품으로 '갈매기'를 공연한다. 갈매기는 안톤 체홉 작으로 배우로서 새로운 비상을 꿈꾸는 한 여자의 이야기이다. 연계를 비롯해 각계각층에 진출한 연극학과 출신 선·후배가 함께 하는 자리인 이번 공연을 통해 원작 그대로의 '갈매기'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4시/7시/30분, 90주년기념 학술문화관 예술극장 문의 2260-8753

광고제

서울캠 광고학과가 '광고'를 낚는 즐거운 시간'으로 제4회 광고제를 개최한다. 23, 24 양일간 치러질 이번 광고제는 광고 전시회와 POP 전시회, 광고 비디오 상영 행사를 이틀간에 걸쳐 진행된다. 문의 011-9924-8437 (홍영수)

광고 비디오 상영	동국관 1층 광고 창작실
경쟁 P/T	23일, 9시, L301에서
도전광고발	24일, 3시 동국관 3층 로비에서
박명천 CF감독 초청 세미나	24일, L101에서

백상 조각전

경주캠 조소과는 열 번째 '백상 조각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ing'라는 테마로 꾸며지며, 인체를 소재로 현대인의 생활을 묘사해 낸다. 영산관과 마주한 조형관을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다. 오늘(20일)부터 25일까지, 조형관 옥상에서. 문의 011-428-0410 (이현성)

애오라지 정지공연

경주캠 한의대 극단 애오라지가 열 여덟번째 정지공연 '서툰 사람들'을 무대에 올린다. '오직, 오로지'라는 순수리얼 뜻의 애오라지는 순수연극을 이어가는 이들의 의지를 나타낸다. 이번 공연은 독특한 캐릭터 설정과 연출을 선보이며, 한계에 부딪힌 사람들의 희망적인 모습을 유쾌하게 풀어낼 예정이다. 오는 23·24일 오후 2시/6시. 소강당 1. 문의 011-806-2508 (이승하)

소나기

다시 오는 'IMF'



△다시 오긴, 누가 IMF 벗어났다고 뻥쳤어!
△다시 안옵니다.
△그럼 군대 또 가야겠군!!!
△노동자가 운다. 그리고 재벌들은 쓴웃음
한번으로 끝난다.
△조선시대도 아닌데, 왕자의 난중에 내
등이 터지나!
△군에 있을 때 내 제대일이 I Am Free 였다.
△더 모을 금도 없다 法 apothecosis
△조국을 위해서라면 내 금니 아까우라
△음... 후학이나 두어번 더 해야겠군... 째
△IMF가 뭐지? 그런게 있었나?
△다시 오긴 뭐가 다시 와?
원래 안 간 줄 알고 있었다.
△후! 할말이 없습디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IMF는 항상 존재했었지 않나?
△없어진지도 몰랐는데, 다시 오다니...
△김대중의 정치는 성공했다고 말하겠지만,
경제는 김영삼과 다를 바 없다.
△야생화의 때 다 퍼주니깐 나라 경제가
바닥날 수밖에...
△우리나라 국민, 대통령, 정치인, 경제인
모두 반성해야 한다.
△돈을 몰 쓰듯 하는 사람들이
아직 한 둘이야?
△다시 글을 모아야만 하는가?
△우리 또 어둠의 세계에서 살아야겠군.
△삼태인을 먼저 터트린 한국.
그 결말의 끝은 어디인가.
△한국은 너무 일찍 뺨패를 울렸고 결국
지금 그걸 후회하고 있다.
△정치인은 말한다. 다시는 IMF가 오지
않는다고.
△항상 '피'보는 건 일반 서민뿐.
△IMF가 오면 허리띠를 졸라매지만 일부
사람들은 돈 보따리를 풀다니데.
△'I am F' 나는 또 F다.
△기업의 몰락만으로 설블리 단정되어야
하는가?
△또 우리만 죽어내는 구만.
△언제까지 이야기가 또 다시 불거져 나오든
건가요? IMF에서 해방은 했었나요?
△돈들 좀 작작 써라.
△예상했던 일이었다.
△김대중 정권은 자신들의 대외 입지확립에
충력을 기울인다고도 볼 수 있다.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단순한 나열 삼가해야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듯 나 또한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하지만 지금 각 대학들이 선거준비에 한창이기 때문에 각 대학 총학생회 선거상황 기사를 신중 써서 읽어보았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의 선거준비 상황과 등록한 후보자들의 수와 각후보자의 기본이념에 따른 공약사항에 대해 보도하고 있었다. 물론 학생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려주는 목적의 기사이긴 하지만 너무 평범하게 처리하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든다. '그냥 타 대학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 이것저것 열거하는데 그치고 그 상황에 대한 견해가 없다.

앞으로 글을 있는데 생각이 없는 안타까운 기사는 없었으면 한다.

김지희 (인문대 국문학부2)

지면 특성 살린 두 기사

지난 호 동대신문에서 '한줄서기'에 관련된 두 개의 기사를 읽어보았다. 특히, 두 기사는 대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소재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그 문제점은 나 자신도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공감이 컸다.

두 기사 모두 같은 소재를 다뤘지만 사회면에 실린 기사는 제도에, 문화면에 실린 기사는 학생들의 교양외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각 지면의 특성을 잘 살린 것 같다.

앞으로도 다양한 관점으로 좀 더 내실 있는 기사들을 다루는 동대신문이 되었으면 한다.

윤영구 (문과대 영문2)

입혀지는 선거책자로 낭비 최소화 해야

요즘 온방골은 선거가 한창이다. 학교 곳곳에서 각 후보자들이 인사와 목소리를 드높여 자신의 의지를 학생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후보자를 모순만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 책자이다.

각 후보자마다 선거책자에 자신의 약력과 당선 후 어떤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포부의 글을 담는다. 즉,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거책자가 많은 역할을 한다 하겠다.

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도와야 할 선거책자가 도리어 학생들의 발에 지뭇하고 함부로 버려지고 있다.

심지어 학교 밖과 버스에서도 선거책자가 버려진 채 굴러다닌다. 잘 활용하면

편한 소식통이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지저분한 휴지가, 우리 발 밑의 걸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책자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우선 선거책자를 너무 고급종이로, 많은 분량을 만드는 것 같다.

이는 소중한 자원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이므로 재생용지를 사용하도록 하고, 너무 많이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또한 많은 페이지를 그만두고 적은 페이지로 간단명료하게 만든다면 지금처럼 학생들의 발에 밟혀있는 선거책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서강일 (관광대 권경2)

게시판 이용에 따른 학생들 의식개선 필요

사이버 시대에 발맞춰 사이버 공간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는 추세다. 언제부터인가 컴퓨터와 인터넷이 필수가 되어 버린 지금, 게시판이나 각종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이 곧 사회 속에서 지켜져야 할 기본예절이라고 생각한다.

본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이 있다. 그 게시판에는 많은 글들이 올라 와 있지만 실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찾기란 쉽지 않다. 자유게시판이라고 개인의 감정에 치우쳐 적힌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은 물론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기도 한다.

우리 학교 게시판을 동대생만이 찾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도 자주 들어오기 때문에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판 관리자를 잘 하는 것도 학교의 이미지와 위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런 게시판에 각종 욕설이나 학교를 비난하는

글들을 올리게 되면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인 것이다.

개인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 속에서 약속된 기본예절을 지키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게시판 활용에 올바른 의식이 정착돼야 할 것이다.

이광배 (자연대 수교2)



만화로의 꿈... '만화열'의 공간에 살아 숨쉬는 만화캐릭터. 상상의 나라 속에 만화 주인공들이 자유로이 뛰놀고 있다. 촬영=송광수 동문

점점 사라져가는 '희생정신' 봉사활동 통해 깨달아가는 자아

얼마 전, 교양 과목인 여성학을 같이 듣는 선배로부터 자원봉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았다. 물론 그 제의는 잘 아는 선배로서 한 것이 아니었다. 여성학을 같이 듣는 사람들에게 행사를 홍보하면서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이다. 자원봉사 내용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실대 여성가족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상영회 준비를 돕는 것이었다.

행사 준비 과정을 통해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되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것 같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강의실을 빠져나가자 정신이 없었고 자원자로 남은 사람은 단 두 명으로 나와 어떤 남학생 한 명뿐이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못하게 되면 어쩌나 은근히 걱정까지 했는데, 못하기는 커녕 지원을 요청한 선배는 두 명도 감지덕지하다는 표정이었기 때문이다.

'한 명도 지원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선배의 한 마디는 우리 대학 문화 속에 내재해 있는 개인적 성향의 한 단면을 말해주는 듯 했다.

물론 행사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이 없다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험 속에서 평가가 깨달아 가야할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평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정신, 이러한 정신이 우리 대학 문화 속에서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원 봉사를 마치고 난 뒤, 봉사활동이 자기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런 봉사활동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주고 또 얻으면서 '나'를 키워 갈 수 있을 것이다.

전은정 (문과대1)

진정한 대학문화

교내의 지금 선거열기로 가득하다. 하지만 학내 이곳 저곳 붙어있는 후보자들의 대자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학생은 보이지 않는다. 합동유세조차도 후보자와 운동원들만의 잔치일 뿐이었다. 과연 무관심한 학생과 활성화되지 못하는 학생회의 약속원은 되풀이 될 것인가?

어느새 대학은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의 위한 직업훈련소가 되어버렸다. 대학 본연의 문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어느 때보다 대학 내 문화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원천적인 힘은 서로에 대한 관심이다. 학생들은 학생회의 모습에 관심갖고 질책 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생들의 주 관심사와 주장을 바로 볼 수 있게 보다 가까이에서 대장을 만나야 한다. 약속환의 고리가 아닌 서로 필요한 불가분 관계의 고리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며 생활하는 문화로서 대학공간이 조성될 것이다.

최낙혁 (사회과학부2)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 7702058
FAX : (054) 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dgupress
니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순두부찌개(1300)
화	제육김치볶음(1500) 닭꼬치구이(1500)
수	설렁탕(1500) 후랑크야채볶음(1300) 오므라이스(1500)
목	사골우거죽국(1300) 오징어숙회비빔밥(1500) 떡만두국(1500)
금	닭개장(1500) 카레라이스(1300) 순살돈까스(1500) 짬뽕국밥(1500) 소고기볶음밥(1500) 튀김백반(15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부대찌개(1300) 김치떡전골(3300) 해물볶음밥(1500) 우갈비찜(3500)
화	바지락수제비(1300) 해물전골(3500) 오징어덮밥(1500) 보쌈정식(3500)
수	쇠고기국밥(1500) 굴창전골(3300) 돈육볶음(1300) 닭꼬치구이(3300)
목	양지탕(1500) 콩나물국밥(3300) 탕수만두(1300) 황태구이백반(3300)
금	원장찌개백반(1500) 시금치조개국(3300) 치킨샐러드(1500) 폭집(3300)

(단위:원)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재현, 용재, 동찬, 영주 수증 시험 무사히 마친 거 축하한다. 빨리 만나서 술 한잔. 알지? -화랑 17기

△이태오빠 진짜로 사회학과 가네오. 축하해요 -사회사랑

△P형, 복수전공 다 하게 되신 거 축하드려요. 3개 다 열세미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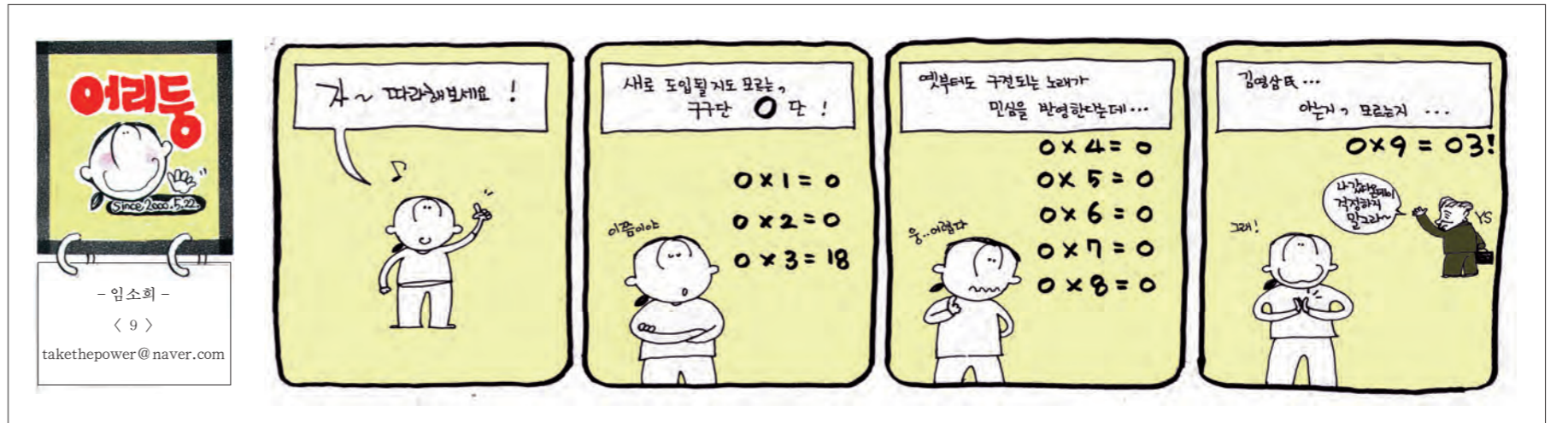
△현진아 20살된 것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다오

△형우 형! 생일 축하해. 근대 장가는 언제가? -Packer

△빈아. 공부 열심히 해라. 누나는 너를 믿는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UM. 유지대 연기하느라 수고했다



목격글
열심히 합니다

△수능 본 아그들이! 수고했다 -Namo

△내년에 우리학교 언덕을 힘겹게 오를 01학번이 불쌍하군. 1년만 수고해라. 다음부터 뛰어오르게 될거야~

△풍국문화회, 시극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인방

그리고...

△오양아! 보고 싶었다. 나만의 맛살이 되어고~ -순가

△수술한 일주일이나 지나고 새로운 마음 감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정규교수님 멋있어요. 좋아요~!!

은망글
축하합니다

△명필, 현진, 선복, 의모, 세왕 2천1 목탁소리 집부된 것 축하해! -00집부 일동.

△11월 28일 "저주의 날" 행정3 중환이의 생일을 우리 모두 축하해줘요~!♡

-행정 패밀리.

△태희 선배, 6주동안 훈련 무사히 끝낸 거 진짜 축하해! 선배의 날개 없는 천사 현주 잘 지키고 있으니깐 넌 열려 마서용~ -귀여쁜 후배??

△승해국물~ 생일(15일) 축하해!! 앞으로 남은 1년 열심히 하나꾸나!! -경민 친구가.

수고하셨습니다

△시선, 동국문화회. 수고했습니다. -96인.

△졸업연구회, 곧 있을 가아금 연주회,

은망글
열심히 합니다

△The ollie! Fighting!! The ollie는 스케이트 보드 동아리 일다.

△친구 세연아~ 마니 심란한 거 같은데 주영이가 있으니가 힘내라... 파이팅 친구아♡해. -널 마니 좋아하는 친구 주영.

그리고...

△영록 선배! 시험 잘 보세요!! 그리고 잘 살아!!! -소낙비 이쁜이.

△정환이 행님! 힘내요!! 여자가 누나밖에 없나요? 세상의 반은 여자입니다. -후배 성재가.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쇠고기무국(1300) 근대국(1300) 카레라이스(1500) 김치볶음밥(1600) 미소시루(1300) 재치국(1300)
화	돈까스(1500) 낙지볶음덮밥(1800) 김치국(1300) 미역국(1300)
수	햄야채볶음밥(1600) 쇠고기덮밥(1700) 된장찌개(1300) 콩나물국(1300)
목	돈육덮밥(1600) 설렁탕(1800) 어묵무국(1300) 콩비지찌개(1300)
금	쇠고기볶음밥(1700) 잡채덮밥(1800) 북아채국(1300)
토	오징어덮밥(1600) 우동(1000)
일	매추국(1300) 하이라이스(1500)우동(1000)

(단위:원)

총동창회 소식

행사 한의과대학 총동창회 정기 총회 및 송년의 밤 (총동창회장: 손찬수)

일시 12월 2일(토)

장소 태우호텔 그랜드볼룸(2250-9184)

시간 19:00

행사 동국인의 밤

일시 12월 14일(목)

장소 장충동 엠버서더호텔 그랜드볼룸2층

시간 18:00